

GGM '캐스퍼 EV' 15일 첫 양산...하반기 2만대 이상 공급

생산물량 25% 증산 최대실적 기대 노사민정 타협 성공양산 완벽준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 일렉트릭(EV)'의 생산량을 늘려 올 하반기에만 2만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캐스퍼 EV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기존보다 생산물량을 25% 늘린 것이다. 오는 15일 첫 양산에 들어가는 캐스퍼 EV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캐스퍼 EV가 GGM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GGM에 따르면 출시를 앞둔 캐스퍼 EV를 올 하반기 동안 2만1400대 생산하기로 했다. 앞서 GGM은 1만7400대 생산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대차 출신인 윤영현 GGM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현대차와 긴밀한 소통도 캐스퍼 EV 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회 또한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캐스퍼 EV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GGM의 올 생산 목표 대수는 기존 4만8500대에서 최소 5만3000대로 상향했다.

1년 10만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 라인을 갖춘 GGM은 현재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 추가 근무 등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GGM의 설명이다.

최근 공개된 캐스퍼 EV는 경차보다는 스포츠유



GGM에서 생산 중인 캐스퍼 EV.

(GGM 제공)

틸리티 차량(SUV)과 같은 단단한 이미지와 넓은 실내 공간, 주행 안정성 등을 갖췄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왔다. 특히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행거리의 경우 1회 충전 시 315km로,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시각과 함께 소비자에게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멀리 간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GGM은 지난 2월 5일 캐스퍼EV 시험생산에 돌입한 뒤 지금까지 약 300대를 시험 생산했으며, 현재 오는 15일 첫 양산을 앞두고 무결점 차량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캐스퍼 누적생산 13만대를 넘어선 GGM은 임직원들의 생산 노하우도 쌓일 만큼 쌓인 상태다.

비록 최근 노동조합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지역

내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캐스퍼 EV 출시로 또 한번 도약하겠다는 게 GGM의 설명이다.

윤영현 GGM 대표이사는 "캐스퍼 EV 생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성공 양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5% 이상 증산하기로 함으로써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면서 전기차 양산에 성공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형 일자리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5년 섬의 날 행사'는 완도에서

8월8일~11일 명사십리 일대...해양레포츠·치유체험 등

내년 섬의 날 행사는 완도에서 치러진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 6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완도군을 선정했다. 완도는 전문가 현장·발표심사 등을 통해 자연환경, 관광 인프라, 다양한 행사 개최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2025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완도 명사십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지자체 홍보 전시관, 해양레포츠·해양치유체험, 섬 추억 포토부스 등이 운영되고 모래 조각품도 전시된다.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 뿐 아니라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 청산도 슬로시티,

청해진유적지 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청산·보길·생일도 등 6개 섬이 선정될 정도로 국내 대표적 섬 관광지로 꼽힌다. 최근에 개장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통한 치유 관광지로도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 6회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의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아 8월 8일로 지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으로 전남대표축제 키운다

세계적 축제 육성방안 집중 논의

지역의 대표 축제를 어떻게 글로벌 축제로 키워나갈까.

전남도는 3일 도청 정청실에서 '제 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제 16회 명랑대첩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점검 보고회를 열고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총감독의 기본계획 발표, 참석자 자유토의 등을 거쳐 성공적 행사 개최와 세계적 축제 육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올해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연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내년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사전 행사 성격인 'Pre-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농·수산물·식품 등 우수상품 품평회,

업체 수출상담회 등도 추진한다. 남도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남도맛투어' 등 남도의 색깔을 담은 '식도락 콘텐츠'를 강화하고 축제 30주년을 기념, 남도음식 전통과 미래를 재조명하는 특별주제관, 푸드테크관 등도 신규 운영한다.

또 남도음식의 글로벌 콘텐츠화를 위해 '세계맛집존'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주한외국관광 관계자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대상 팸투어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랑대첩축제'는 올해 명랑대첩 승전일(음력 9월 16일)과 축제 시기를 일치시켜 오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로서 명랑대첩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 초실감형 해전을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명랑대첩 학술세미나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 지속가능한 경영전략(ESG) 축제 운영을 통해 대표 글로벌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연탄값 인상...광주시, 취약계층 추가 지원

광주시는 3일 "연탄 가격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연탄 공장이었던 남선연탄이 지난 4월 폐업하면서 지역민은 전주 등 타지에서 연탄을 수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물류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

계층(연탄 바우처) 712가구에 3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들 가구는 정부로부터 연간 최대 54만6000원을 지원받고, 광주시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246가구에 14만원을 추가 지급해왔다.

남선연탄은 공장 주변 주택, 상가에서 지속된 분진 민원과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 겨울 가동을 끝으로 폐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미래 전남 해양수산업 책임질 수산경영인들 한 자리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대회

오늘까지 15개 시·군 3천여명 참석

미래 전남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책임질 수산경영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 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대회'가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완도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미래로 도약하는 수산경영인'을 주제로 전남지역 15개 시·군에서 3000여명의 수산업 경영인들과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참석, 전남 수산업과 어촌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미래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치어방류, 전남 수산물 홍보·판촉, 수산기자재 전시회, 수산업경영인 한마당 잔치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전남도는 기념행사에 앞서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참조기 5만 마리를 완도항 인근 해역에 방류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허브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대회' 환영 리셉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유가·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생산을 위해 목욕히 노력하는 수산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갑을 비롯해 수산물 생산액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기

반 확대를 위해 ▲김양식어장 확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목포시 죽교동 57-42번지 일원의 생활마을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4.
목포시청

1. 주요 내용
가. 공고명: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명	구종	구번호	구폭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소로	3	345	6	국도	186	소로2-468 국교동 3-2구	소로3-46 국교동 57-42내	일반 도로	-	목포시도시계획(2007.5.11.)
변경	소로	3	345	4-5	국도	175	소로3-41 국교동 86-22외	소로3-46 국교동 57-42내	일반 도로	-	목포시도시계획(2007.5.1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45	소로3-345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B = 6m → 4.5m L = 186m → 175m	주민 불편사항 개선으로 개설 가능한 도로 신형 변경 ·노후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소정도로를 확보하여 재산권신장고 애항 및 가로 환경 정비

2. 관계도서: 계획(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정과 비치)
3. 열람기간: 2024. 7. 4. ~ 2024. 7. 19(15일간)
4. 열람장소: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정과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공고(안)는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14), 도시재정과(☎061-270-3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생략공고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대한 주민 청취(입장) 거부, 단상 절차 및 진행방에 등 "공청회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4.
한빛해상풍력(주) 대표이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 명: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도리 및 송이도 인근 해역 일원
· 사업시행자: 한빛해상풍력(주)
· 승인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규모: 발전용량 총 340MW

2. 무산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1회	2024.06.04. (화) 오전 10시30분	영광군 예술의전당(소공연장)
2회	2024.06.24. (월) 오전 11시	영광군 예술의전당(소공연장)

3. 공청회 생략 사유
· 주민 청취(입장) 거부, 단상 절차 및 진행방에 등 "공청회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4. 생략자료 열람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내 국민참여에 열람자료 게시

5.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10일(7일간)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 작성 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전자메일(hdils@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빛해상풍력(주)(☎061-872-8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이길형(890902-1XXXXXX)
- 최후주주: 광주 동구 천변로604번안길 1-2 (스태빌)

피상속인 양이길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사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단616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4일

- 상속인: 이문수(630806-1XXXXXX)
광주 북구 양산택지소로 30, 106동 1001호(본촌동, 부영사망으로)
- 신고기간: 2024. 7. 4. ~ 2024. 9. 13.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문수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타628㎡ 대경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光州日報

북구: 동 광 266-1920 • 동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우 지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 상 화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광산구: 동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지국안내